

천당과 지옥은 마음 속에 있다

생존경쟁이 심해지면 인정이나 우정보다
 세속적인 가치가 앞선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진 수문처럼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
 한 사람의 성의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한 마음의 준비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과인의 성공전략'이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됩니다.

〈편집자주〉



글 / 최해병

- 한국휠드마케팅연구원장
-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 기업체 및 각종 외식업체, 제과점 직원교육 담당

회를 앞세우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술을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무섭게 회를 내는 사람이 있다. 소위 술 버릇이 좋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성격은 친구를 사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어 진실한 우정을 맺기 어렵다. 또한 어떤 사람은 술 한잔 입에 대지 않은 때에도 앞 뒤 가리지 않고 벌컥 회를 내며 자기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회를 낸다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회를 내어 이성이 흐트러지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순간, 상대방도 나에게 베풀었던 마음을 의심하게 되고 한번 금이 간 우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나 자신의 기분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것은 어제의 친구를 내일의 적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 기분에 따라 수시로 화난 얼굴이 되는 사람에게 진실한 친구가 생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희생없이 얻을 수 있는 친구는 없다

사람의 인생에서 진실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보람이고 행복이다. 예수 역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쳤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사람을 얻는 최선의 길이라는 뜻인데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참다운 친구를 원한다면 언제나 타인을 포용하는 도량과 성실함, 진취적 기상, 확고한 인생관, 모험에 도전하는 용기, 끊임없는 탐구심을 갖추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 상대의 마음에 전해질 때 비로소 그 역시 나를 친구로 대접해 우정을 베풀어 준다.

우정이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고귀한 보석과 같아서 배움의 많고 적음, 즉 개개인의 교육수준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생활 수준이 높아진 현대인일수록 인정을 도외시하고 자기분위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려는 풍조가 많이 나타난다. 생존경쟁이 심해지면 인정이나 우정보다 세속적인 가치가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굳게 닫

혀진 수문처럼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 한 사람의 성의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대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다

아랍 속담에 “혀가 미끄러지 것보다 다리가 미끄러지는 것이 백번 낫다”라는 말이 있다.

다친 다리는 머지않아 아물게 마련이지만 함부로 내뱉은 말은 도로 주워담을 수 없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365일 언제나 똑같이 너그러운 마음일 수는 없다. 기분이 울적한 친구에게 상스런 말로 농담을 하거나, 짖궂은 장난을 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예의를 무시한 채 경박한 말이 오가다 보면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이로 인해 결국은 서로의 신뢰에도 조금씩 금이 가게 된다.

예의와 절도는 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일수록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언어 예절이다. 공장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근무하는 동료들끼리 “너 때문에 일이 자꾸 엉망이 되잖아”라거나 “일 좀 똑바로 하지 못하겠어”라고 직설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은 상대를 향한 선전포고와 같다. 전쟁터에서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오직 상대를 향한 불타는 적개심이 있을 뿐이다.

충고나 조언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친구로서 충고하겠는데...”라고 전제를 한 뒤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런 태도는 인간적이고 예의바른 모습이지만 결코 지혜로운 처세라고는 할 수 없다. 남에게 충고를 듣고 마냥 기분 좋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럴 때 친구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아”라고 반발을 한다면 둘 사이의 우정은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진심으로 친구를 위해 충고나 조언을 해야 할 입장이라면 끝까지 일의 뒤치다꺼리를 하겠다는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즉흥적인 충고나 조언은 결국 대책없는 비평으로 끝나게 마련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비난’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 뒤 생각없이 상대에게 “이것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상대방의 마음을 언짢게 한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테니 이렇게 고쳐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바로 진정으로 친

구를 위하는 마음이다.

천당이나 지옥이나

옛날에 한 수도승이 스승에게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라고 물었다. 스승은 “거기에는 큰 가마솥이 걸려 있고 맛있는 국수가 끓고 있다. 또 누구에게나 국수를 건져먹을 수 있는 한 팔 길이의 기다란 젓가락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솥 앞에서 소란을 부리며 서로를 밀어내려고 한다. 힘 센 몇 사람이 가까스로 국수를 건져내어도 젓가락이 너무 길어 입에 넣지를 못하고 누군가 그 틈에 국수를 빼앗아 먹으려다 결국은 가마솥에 도로 흘려버리기 일쑤다. 결국 그들은 언제나 계속되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승이 이번에는 천국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스승은 “천국도 지옥과 똑같다. 단지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국수를 집어 옆 사람에게 먹여주면서 ‘먼저 드세요’라고 말한다. 그 사람이 국수를 받아 먹고는 ‘고맙소, 덕분에 배부리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 그 역시 국수를 떠먹여준다. 그래서 이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서로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드물게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남을 돕는 사람도 있다. 남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보람과 인생의 기쁨을 느끼며 매일매일 천당에서 사는 사람일 것이다.

불경의 하나인 보왕삼매론에 이런 글이 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사는데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수행을 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일이 쉽게 이루어 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밝히려 하지 말라”

2,500년 전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신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 날에도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된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사치스런 마음이 생기기 쉬우며, 공부에 장애가 없으면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수행하는데 유혹이 없으면 애초의 다짐을 굳건히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또한 남이 내 뜻대로 대해주면 교만해지기 쉬우며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경솔하게 되고,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며, 보답을 바라고 남을 도이주면 엉뚱한 뜻을 품게 되고, 억울함을 밝히려는 마음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든다.

인생이란 험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힘든 일보다 쉬운 일을 바란다. 그러나 쉬운 일에는 성취감도 없고 어려움을 극복한 후의 즐거움도 맛볼 수 없다. **이**